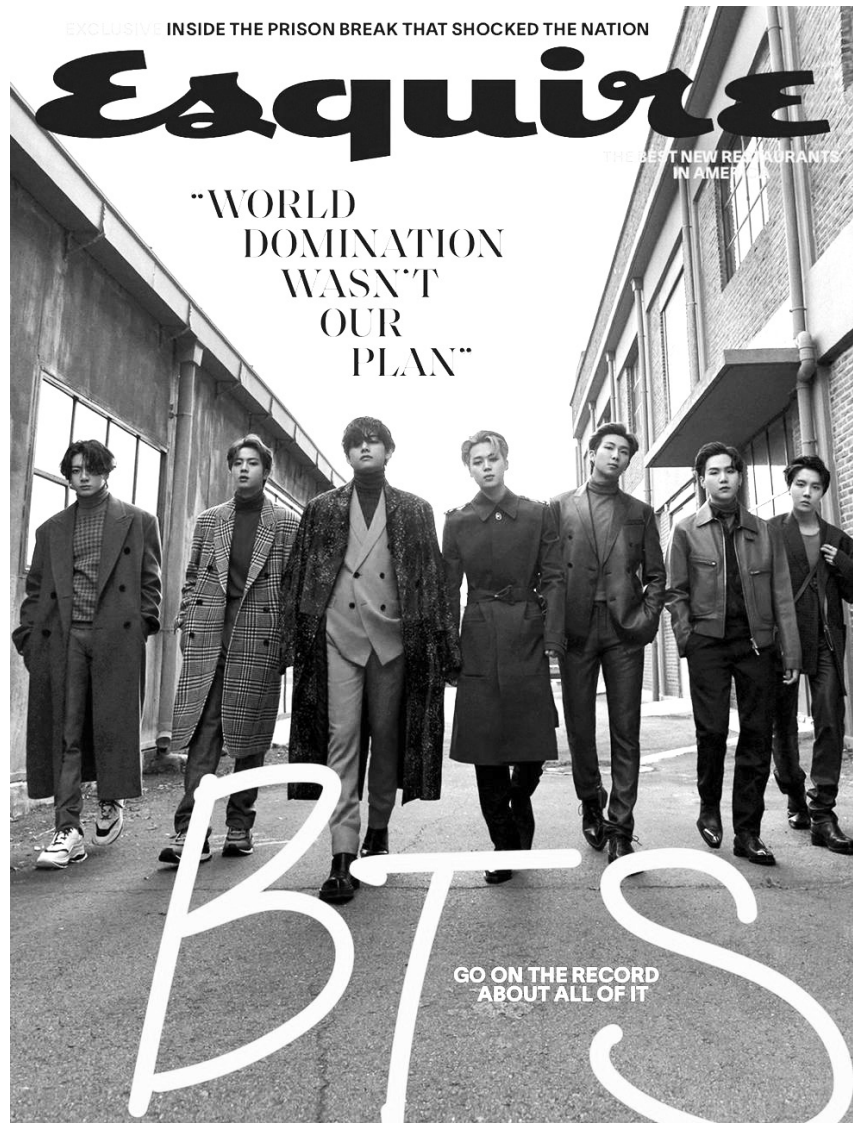


# 보수적인 그램미도 영향력 인정...“가능성 영역 넓혔다”



미국 잡지 '에스콰이어'의 겨울호 표지를 장식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모습.

## 팝 본토 안착한 BTS, 마침내 그램미 후보...수상 가능할까

### 변화 필요한 그램미 K팝 수용 미 음악시장 주류 편입 의미 K팝 위상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보수적인 미국 주류 음악계를 상징하는 '그램미 어워즈'(Grammy Awards)에 마침내 후보로 오르며 K팝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켰다.

그램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한국시간 25일(미국 서부시간 24일) 제63회 그램미 어워즈 후보 명단을 발표하며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후보로 지명했다.

그동안 방탄소년단은 막강한 팬덤, 새로운 세대 및 시대상과 공명하는 감성을 바탕으로 팝 시장 심장부에 빠르게 밀고 들어왔다. 다양성과 혁신 압박을 받아온 그램미도 이런 흐름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관심은 내년 1월 31일 개최되는 그램미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의 이름이 수상자로 호명될지에 쏠린다.

◇“정점에 다다른 센세이션”...변화 필요한 그램미, K팝 포용

지난해 '뎀 오브 더 숲: 페르소나' 앨범을 히트시킨 방탄소년단이 끝내 그램미 후보에서 제외됐을 때 팬들과 음악계 내부의 비판이 거셌다. 당시 미국 음악매체 롤링스톤은 “그램미는 늘 그렇듯이 시대에 뒤쳐져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 이후 방탄소년단은 주류 팝 시장에서 한층 강력한 성과를 냈다.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정상에 오르며 방탄소년단 곡 가운데 북미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히트하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BTS 센세이션이 정점에 다다른 상황”(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이 됐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는 이제까지 그램미 후보 지명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어떻게 보면 K팝에 대한 견제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2년 정도는 K팝이 견제할 수 있는 기세가 아니었고 ‘다이너마이트’라는 1위 곡도 나왔다”고 짚었다. 이처럼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주변부 마니아층의 것으로 더는 치부하기 어렵고 주류 팝 음악계도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그램미에서도 최근 몇 년간 단계적으로 존재감을 키워왔다. 지난해 시상자로 참석한 데 이어 올해는 래퍼 릴 나스 엑스, 컨트리 가수 빌리 레이 사이러스 등과 함께 ‘올드 타운 로드 올스타즈’ 합동무대를 펼쳤다.

그램미 후보 지명은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 즉 미국 주류 음악계가 방탄소년단의 위상을 인정했다는 가장 가치적이고 상징적인 제스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램미는 업계 동료들이 음악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시상식이기 때문에 그동안 서구에서 ‘상품’으로 폄하됐던 K팝이 음악적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임진모 평론가는 “존재감 자체가 미국 주류 안으로 파고 들었다는 접근이 가능하다. 그것이 결국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꿈계 고정팬들 돌파...수상 땀 그램미 역사에도 한 획  
방탄소년단이 후보 지명을 넘어 실제 그램미 트로피를 거머쥘다면 한국 대중음악은 물론 그램미 역사 자체에도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방탄소년단이 그동안 보여준 경쟁력이나 화제성을 고려한다면 수상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이규탁 한국 조지메이슨대 교양학부 교수는 “올해 빌보드 차트나 음악 시장을 봤을 때 그룹이나 듀오 중에서는 활약상이 다른 그룹 못지않았고 사회문화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이너마이트”는 팬데믹 상황에서 방탄소년단 특유의 즐거운 에너지와 복고적 디스코 사운드로 사람들에게 위안을 건네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다만,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레인 온 미’, 테일러 스위프트와 본 이베어의 ‘역사일’ 등 경쟁하는 후보들이 쟁쟁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램미의 보수성도 여전히 뿌리 깊다.

설령 이번엔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방탄소년단의 행보는 계속될 전망이다. 리더 RM이 말한 “미국(팝 무대 진출) 여정의 마지막”이 그램미 후보 지명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윤하 대중음악평론가는 “방탄소년단은 한국 대중음악계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뛰어넘으며 성장한 팀이고 그 특별한 에너지가 미국 메인스트림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상호 상승작용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들이 한국, 나아가 아시아가 배출한 팝스타로서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것을 보면서 미국 시장도 자신들의 포용 범위를 넓혀나가는 느낌을 받는다”라며 “아직은 방탄소년단이라는 단일 그룹 사례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경험이 있는 음악인과 없는 신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드라마 촬영장서 확진자 속출...방송가 코로나 ‘악몽’

### 보조출연자 이단 확진 판정 ‘펜트하우스’ ‘시지프스’ 등 10편 촬영 중단 사태 발생

드라마 촬영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속출하면서 촬영 중단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방송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촬영이 중단된 드라마는 현재 방영 중인 SBS TV ‘펜트하우스’, MBC TV ‘나를 사랑한 스파이’를 포함해 방영 예정인 ‘달이 뜨는 강’(편성 미정), ‘보쌈’(편성 미정), JTBC ‘설강화’·‘시지프스: 더 미스’(이하 ‘시지프스’)·‘허쉬’, SBS TV ‘조선구마사’, tvN ‘철인왕후’, 카카오TV 오리지널 드라마 ‘도시남녀의 사랑법’ 등 총 10편이다.

지난 19일 한 보조출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보쌈’의 경우 이날 오전 보조출연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

‘보쌈’ 제작사인 제이에스픽처스 관계자는 “확진자를 제외한 128명의 출연자와 스태프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역외조사 결과 촬영장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15명은 자가격리를 하게 됐다”며 “재정비를 통해 다음 주 내로 촬영 재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BS TV ‘펜트하우스’는 보조출연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촬영이 중단된 상태다. 다만 촬영 종료로 앞두고 있어 드라마 방영에는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MBC TV ‘나를 사랑한 스파이’에서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보조출연자 1명을 포함해 그와 동자와 동선이 걸친 배우 및 스태프는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JTBC에서는 드라마 ‘시지프스’와 ‘설강화’에 이어 ‘허쉬’까지 촬영이 중단됐다. ‘시지프스’와 ‘허쉬’에서는 보조출연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설강화’에서는 보조출연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조선구마사’, ‘철인왕후’, ‘도시남녀의 사랑법’ 모두 보조출연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촬영이 잠정 중단됐다.

그동안 방송가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영화나 가요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최근 현장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추후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방송 EBS 출연자 중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접촉자가 발생해 아동 프로그램 진행자가 교체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이번 주 드라마 등 촬영장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눈에 띄게 발생하면서 방송가 일정 차질이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

## ‘영끌’해 집 사야 할까 2030세대의 돈 이야기

### KBS 29일 ‘밀레니얼 머니’ 방송

2030세대 ‘영끌’(영혼까지 돈을 끌어모으다)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KBS 1TV는 오는 29일 브이로그 다큐멘터리 ‘링크’ 두 번째 편 ‘밀레니얼 머니’를 방송한다고 24일 예고했다. 방송에는 돈에 대해 고민하는 스타트업 CEO 임현서(29)와 택배 기사 김종명(34), 예술가 이광(34) 세 명이 등장한다.

내년 결혼 예정인 임현서에게는 신혼집이 필요하다. 대원외고-서울대 경영학-서울대 로스쿨 졸업. 화려한 스펙을 소유한 스타트업 대표이지만 정작 돈이 없다. 서울 은평구 20평대 아파트 전세는 6억5000만원, 매대는 11억5000만원. 그는 양쪽 집안을 거덜 내도 살까 말까 한 금액에 충격만 받고 돌아왔다.

딸 하나를 키우는 김종명의 꿈은 ‘인서울’이다. 흑시나 하고 찾아간 서울 마포구 부동산에서 관망은 매물이 없다고 들은 아파트값은 15억1000만원. 대안을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모두 “조금 더 일찍 오셨어야죠”다.

갈수록 커지는 금중증은 “나도 영끌해 집을 사야 할까”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h3>제니골드(귀금속카페)</h3> <p>동구 충장4가 3-3 (광주 충장로 귀금속거리 사거리) 금(14k·18k·24k) 매입·판매 아메리카노, 자몽에이드, 진저러드, 생강차 대표 박형수 ☎ 010-8619-2954</p>	<h3>문화결혼상담소</h3>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p>	<h3>100세의료기 나주점</h3> <p>전남 나주시 나주로 211(성북동) 복지용품, 장애인, 보조기기, 환자간호용품, 위생용품 병원처방용 건강체크기, 가정산소발생기대어 제할용품 각종 물리치료기, 찜질기 전통스쿠터 판매및수리 ☎ 061)930-1038, 010-8811-9116</p>	<h3>국수나무 광주신안점</h3> <p>북구 서암대로95 (신안교앞 고은@상가거층) 각종 국수와 돈까스, 각종 식사류 ☎ 062)531-0331, 010-5511-0331</p>	
<h3>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h3>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h3>법무사 이영석사무소</h3> <p>동구 밤밭로 16-1(지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계, 상속, 증여 등 상담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명서,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 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입찰기법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p>	<h3>보광세탁소</h3> <p>동구 지산1동 동명로73-2(구,농장다리앞) 각종 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 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p>	<h3>법무사 김은희사무소</h3> <p>목포시 정의로26-4 범초하우스 3층 개인회생, 파산면책,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신탁등기, 공탁 ☎ 061)284-3005, 010-9477-4872</p>	
<h3>동양철학원</h3>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h3>필스제화</h3>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옛글라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p>	<h3>인철(仁喆)익스프레스</h3>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h3>웅추해신삼계탕</h3> <p>북구 저불로93(용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준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분위 ☎ 062)523-1003, 010-5355-0867</p>	
<h3>평화이사소파</h3> <p>북구 운암동 794-13(대자초등학교 옆) 가정용, 영업용 불박이, 톨소파, 업소용제작 천장이 리폼전문 각종 소파 천장이수리 및 제작 전문공방 ☎ 062)371-2110, 010-9404-3571</p>	<h3>석당화랑</h3>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h3>고전방</h3>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h3>남도철학원</h3> <p>북구 전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p>	<h3>신신예술의집</h3>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h3>대연건설</h3> <p>동구 제봉로 190번길 7-1(대인동) 간선업·설비·토목·공장·수도·하수도 ☎ 062)236-1510, 010-2630-4820</p>	<h3>매산철거·삼보소개소</h3> <p>북구 자산로 32(신안동) 건물상가·집수리, 오래된반 폐기물처리, 고철 파지, 스텐 특수이장, 조적, 방수, 철근, 콘크리트페인트 용접, 보일러수리, 비계, 장·인부알선 ☎ 062)528-7005-6, 010-3625-2786</p>
<h3>초대화랑</h3> <p>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h3>박당화랑</h3>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및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p>			